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1일 화요일 음 1월 18일 (10월)

기상정보

흐리고 한때 비



제주도는 맑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5-6℃, 낮 최고 기온은 14-15℃의 분포를 보이겠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물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3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sunset and moonrise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food poisoning and cold risk indices.

월드뉴스

中, 3차 전세계 승인... 희망자 150여명

국방어학원서 2주간 생활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올 '3차 전세계' 투입에 대해 지난 주말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차 우한교민 수송에 나선 대한항공 전세기.

장하성 대사는 10일 베이징 특과 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전세계와 관련해 지난 주말 구두로 승인한다는 중국의 통보를 받았다"면서 "중국 민항국이 구체적인 운항에 대해 최종 통보를 해주길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른 시일 안에 (통보가)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명이며, 이들이 14일간 임시로 머무르는 생활 시설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됐다.

장 대사는 "우한과 인근 지역 교민 150명 정도가 귀국을 희망하고 있고 우한 총영사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희망자들이 전세기에 탑승하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우한 교민 701명을 국내로 데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이번 3차 귀국자 규모는 150

한편, 장 대사는 한국에 남아있는 중국인 현황에 관해서는 "지난 6일 기준 4300명 정도가 한국에 남아있다"며 "그중 승무원이 200여명, 영주권자가 300~400명, 제외종류 300명을 제외하면 3000명 이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address.

한라칼럼



김윤우 무릉외갓집

“PLS라는 게 도대체 뭐니?”

“PLS라는 게 도대체 뭐니?”

지인의 자녀 결혼피로연에서 만난 친구가 필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발농사 외 감귤 과수원까지 경영하는 친구인지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었기에 이 질문은 다소 의아스러웠다.

참가지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지역·마을마다 새해농업교육과 PLS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PLS제도를 모르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농민들이 있다는 것은 관련교육이나 홍보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고령농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 75세 이상 고령농은 대부분 그 마을의 과반을 넘고 있다. 그렇기에 고령농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렇기에 작목별 병해충진단과 방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서 쉬운 용어를 채택해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약제등록실태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일부 농민들은 "일부등록약제는 규정대로 사용해도 효과가 적고,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의 약제가 해할 수 있도록 '배배당당'이라는 로고송도 만들어 보급했다. 올해도 마

하면서도 정작 섞어짓기(혼작) 등 공적으로 사용하는 약제개발과 등록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좁은 농토에 농약을 뿌리면 이웃 농작물에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유입문제'와 '드론 및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다. 대부분 농민들은 그 마을의 친척, 선후배기간으로 농사를 짓다가 비산문제로 다툼이 시작되고 급기야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갈등 및 오염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 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PLS제도를 제주농산물 우수성과 공익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했으면 한다.

첫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농민 스스로가 호응하는 게 우선이다. 이 PLS제도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오는 5월에 시

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탑승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농약 PLS는 농산물 수입측면에서 비관세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는 상대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 소규모재배 농산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가 가능해 이를 통한 수입억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PLS가 갖고 있는 손기능 중 하나이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제주정경 이미지이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문화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주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은 관계기관이나 농민들도 번거롭고, 낯설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공유하고 공감하는 포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열린마당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송상철 한국감귤전문지도연구회장

해마다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초기 감귤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주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일반 조생감귤 출하에 앞서 출하되는 극조생감귤 품질과 출하가격 형성이 그해 감귤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감귤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극조생감귤은 1970년대에 감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귤 가격지지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해 도 전체 감귤 재배 면적의 15% 내외를 차지한다.

는데 나무 크기가 작고 나무 자라는 힘이 약하다. 면적당 생산량도 조생감귤의 80-90% 수준이다. 생육기간도 짧아 당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극조생감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

하지만, 일반조생에서 극조생으로 품종을 전환하거나 새롭게 극조생 감귤원을 조성한다면 재배면적 조절 실패로 몇 년 후 유통 및 가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감귤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우량 품종 선택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 출하조절, 차별화된 유통·마케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오래전 가전제품 광고 문구에서 감귤산업을 안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시기별 분산 출하와 노동력 안배를 위한 다양한 품종 선택, 품종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실천을 통해 제주 감귤농가들의 함박웃음이 가득할 날을 희망해 본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늦지 않았다



허주연 제주보건소

최근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왕국 엘사의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보다.

지난달은 한반도 기상 역사를 다시 쓴 따뜻한 1월이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표면감시 주간현황에 따르면 올해 4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0.9명으로 전년 동기상 15.3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이다. 또 미국에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독감으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작된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앞으로는 임신부에 게도 확대됐다. 이에 올해 4월 30일까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산모수첩 등)를 제시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 등의 위험이 크고, 태아 건강보호 및 해 지원이 필요하여 2019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1월 31일 기준 질병관리본부의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7.3%, 어르신 접종률은 83.5%인 반면에 임신부 예방접종률은 35.6%에 그쳐 미미한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접종 효과 지속시간이 평균 6개월정도(3-12개월)임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한다 면 오는 봄철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에 대비할 수 있겠다. 인플루엔자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엘사의 마법을 예방접종을 통해 실천해보면 어떨까.

Advertisement for Hanlim Education Center (한림교육) listing various courses like '유라실생 4년생' and '유라실생 3년생' with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Gamsul Education Center (감골교육) listing various courses like '유라실생 1,2,3년생' and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with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Hanra Construction (한라건설) for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listing services like '기공·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Rimodeling (리모델링) services, listing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and various renovation services with contact info.